

[서평 1(한국어)]

정찬원 저 『재일 한국인의 백년을 생각한다』(문, 2010)

〈책 소개〉

이 책은 날선한 외관을 자랑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백년’을 살아온 재일 한국인의 삶을 역사사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재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부상시킨다. 이 책은 과거 ‘백년’ 재일 한국인의 삶을 현재의 시점에서 조망하면서 앞으로의 ‘백년’을 생각하게 한다. 저자의 실제 체험과 조사가 빛을 발한다. 이론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재일 한국인과 일본인의 목소리를 동시에 담고 있어, 재일 한국인의 현재와 장래를 생각하는 독자에게도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지난 1월 30일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일본에 우승을 안겨준 이충성 선수의 일본 이름은 ‘리 타다나리’이다. 리 타다나리는 귀화한 일본 축구선수이고 이충성은 재일한국인이다. 언뜻 영웅의 모습에는 모순이 동반하나 재일 한국인이 안은 복잡성은 단순명쾌한 사고 틀을 깬다. 그렇기에 ‘재일 한국인’에 대한 질문은 곧바로 단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을 되묻는 것과 같다.

재일 한국인이 지나는 세월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런 한 마디를 던지면서 ‘그들’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음은 없다. 이 책은 ‘백년’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약 200여 페이지 분량으로 두툼지 않고 소프트 커버에다 목격하지도 않다. 덕분에 ‘재일한국인’이라는 무거운 주제와 편하게 조우할 수 있는 외관이다. 하지만 목차에 눈을 돌리면 ‘백년’이라는 역사가 고스란히 따라 나오며,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재일 한국인의 생생한 목소리도 투명해진다. 먼저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재일 한국인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을 담고 있다. 일본의 한국 지배가 낳은 재일 한국인은 해방 후에도 법적으로 ‘차별’을 감수해야 했다. 역사와 제도 속에 감금당한 그들은 ‘운동’과 ‘투쟁’으로 읊아매는 운명에 저항하며, 1세, 2세, 3세, 4세로서 삶을 살아왔다. 재일 한국인의 과거와 현재는 각종 통계 자료로 제시되며 ‘조국’과 ‘일본’의 틈새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는 다양한 삶이 역동적으로 제시된다.

제3장과 제4장은 2009년에 저자의 주관 하에서 실시된 재일 한국인 의식조사의 ‘개요’와 ‘결과’를 싣고 있다. 재일 한국인에 관한 연구에서 취약했던 실생활의 심층을 해부한다. 재일 한국인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본명과 통명 사용, 귀화 등에 대해 그들 목소리를

담았다. 2009년 자료 이외에도 2000년의 ‘민단’ 조사와 같은 기존 자료도 활용되어 의식의 변모 양상이 한 눈에 들어온다. 여기에 제5장에서는 ‘일본인의 의식조사’를 실어 일본인이 바라본 재일 한국인상을 분석한다. 재일 한국인의 의식조사와 대조해 읽으면 일본사회 속의 재일 한국인의 모습이 입체적으로 조망된다.

제6장 ‘함께 사는 평등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재일 한국인과 잦은 접촉을 가진 저자는 일본사회와 재일 한국인의 공생이 일본을 평등사회로 이끄는 길이라고 역설한다. 이 책은 부록으로 재일 한국인에 관한 일본 법령의 몇몇 조약과 협정 등을 번역하여 실고 있다. 이 자료는 평소 한국어로 쉽게 접할 수 없으므로 가치가 있다.

이상으로 보면 이 책은 날선한 외관을 자랑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백년’을 살아온 재일 한국인의 삶을 역사사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재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부상시킨다. 특히 의식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재일 한국인들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일본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 일본인들도 이에 응답하듯 재일 한국인에 대해 대부분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재일 한국인이 일본에서 ‘차별’당한다는 통념과 다른 결과이다. 오히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통계자료나 각종 법령집이 보여주듯이, 국가 제도가 재일 한국인을 속박하는 측면이 강하다. 평범한 일상에서는 일본인 속에 사는 재일 한국인의 삶은 그리 험난하지 않다. 재일 한국인이 본명과 통명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귀화를 하더라도 ‘한국인’이라는 의식은 달라지지 않는다. 일본인들도 마찬가지로 ‘국적’에만 얽매어 재일 한국인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층성은 축구로서 일본에 ‘공헌’했다. 그렇다고 그가 재일 한국인이 아니라고 누구도 말하지 못한다. 이 책은 과거 ‘백년’ 재일 한국인의 삶을 현재의 시점에서 조망하면서 앞으로의 ‘백년’을 생각하게 한다. 저자의 실제 체험과 조사가 빛을 발한다. 이론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재일 한국인과 일본인의 목소리를 동시에 담고 있어, 재일 한국인의 현재와 장래를 생각하는 독자에게도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이한정(동국대 일본학연구소)